

[18~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 몸 생겨남이 금수와 다르므로  
**애친경형\*과 충군제장\***을 내 분수 안의 일로만 여겼더니  
 ㉠ 하나도 못 이루고 세월이 늙어지니  
 평생 우환은 날 따라 길어간다  
 아침이 부족한들 저녁을 근심하며  
 ㉡ 일간모옥(一間茅屋)이 비 새는 줄 알던가.  
 누더기 옷이 부끄러움 어이 알며  
**어리석고 미친 말이 남의 미움받을 줄 알던가.**  
 우환도 우환할샤 그토록 우환할샤.  
**춘산(春山)에 꽃을 보고 돌아올 줄 어이 알며**  
 하정(夏亭)에 잠을 들어 꿈 깼 줄 어이 알며  
 추천(秋天)에 달 맞아 밤 드는 줄 어이 알며  
**동설(冬雪)에 시흥(詩興) 겨워 추움을 어이 알리.**  
 사시가경(四時佳景)을 아모란 줄 모로라  
 말로(末路)에 버린 몸이 무슨 일을 생각할꼬  
**인간 시비(是非) 듣도 보도 못하거든**  
 일신의 변성과 쇠락 백 년을 근심할까  
 우환할샤 우환할샤 그토록 우환할샤.  
 아침에 누워 있고 낮에도 그러하니  
 하늘이 준 우환을 내 설마 어이하리.  
 그래도 애달프도다 고쳐 앉아 생각하니  
 ㉢ 이 몸이 늦게 나서 애달픈 일 많고 많다.  
 일백 번 다시 죽어 **옛사람 되고 싶네.**  
 회황천지\*에 잠깐이나 놀아 보면  
 요순(堯舜) 일월을 잠시나 쬔 것음  
 ㉣ 순박한 풍속이 아득히 멀어졌으니 경박하게 되었고다.  
 한만(汗漫)한 정회(情懷)를 누구더러 이르려뇨  
 태산에 올라가 온 세상이나 다 바라보고 싶네.  
 추로에 두루 걸어 성현이 가르치던 자취 보고 싶네.

(중략)

만 리에 눈뜨고 태고에 뜻을 두니  
 우환한 심혼(心魂)이 그리로 가고 아니 오는구나.  
 인간에 혼자 깨어 누구더러 말을 할꼬.

— 정훈, 「우환가」 —

\* 애친경형 : 아버이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함.

\* 충군제장 :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른에게 공손함.

\* 회황천지 : 중국 복희씨 때의 세상. 태평성대를 뜻하는 말.

(나)

일곡(一曲) 승계산에 생애를 부쳐 두고  
 어부와 나무꾼을 내 일로 삼아 백 년을 보내리라  
**어즈버 무이구곡\*이 여기도 그곳인가 하노라** <제1수>  
  
 삼곡(三曲) 낚싯대 하나를 석양에 비껴 들고  
 맑은 강 굽어보니 백어(白魚)도 많고 많다  
**이 맛을 인간 세상에 제 뉘라서 알리오** <제3수>  
  
 육곡(六曲) 속세를 버린 듯하니 심신도 한적하구나  
 ㉠ 물고기와 새우 벗을 삼고 물과 돌을 ㉡ 짚을 삼아  
 늙기를 다 잊은 후에 놀고 놀자 하노라 <제6수>

— 이중경, 「오대어부가구곡」 —

\* 무이구곡 : 중국에 있는 경치가 아름다운 곳.

(다)

나는 천성이 구름 보기를 좋아하지만, 그게 왜 즐거운지는 스스로 설명하기 어렵다. 구담의 군옥봉 중에 ㉠ 서루(書樓)를 짓고 ‘다백운(多白雲)’이라는 편액을 걸고는 혼자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구담에 항상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좋은 구름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이게 걱정일세.”

무릇 단비가 내려 만물이 생장함은 천지의 마음이요, 구름의 묘용(妙用)이다. 그러나 온 세상에 구름이 끼어 비가 잔뜩 내리더라도 풀 하나 나무 하나가 혹 그 은택을 받지 못한다면 ㉡ 군자는 또한 걱정하나니, 걱정은 그칠 날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유독 **맑은 구름**을 좋아한다. 맑은 구름은 그 흰빛이 신기하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형상을 띤다. 바로 이 순간 천지의 마음이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으며** 만물이 때를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되나니, 나의 즐거움 또한 **말 없음**에 있거늘 대저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그러나 구름은 무시로 일어나지만 마음에 딱 드는 때를 만나기란 쉽지 않으며, 접하는 일이 무궁한 까닭에 나의 근심과 즐거움은 상황에 따라 변한다. 그러니 좋은 구름이 없더라도 걱정할 겨를이 있겠는가? 대저 산과 바다, 시내와 바위의 경관이 비록 아름답긴 하지만, 만일 종신토록 조용히 앉아 밤낮없이 그것만 바라보게 한다면, 그 신기하게 변하고 유동하는 모습도 도리어 한 덩어리 물건에 불과하게 되어 보는 이를 싫증 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기장밥을 먹고, 배운 입고 가죽띠를 두르며, 도와 의리, 경전과 사서(史書)에 대해 **공부하는 일은** 정신을 평안하게 하고 몸을 튼실하게 만들어 주는 까닭에 어떤 곳에서든 편안하며, 오래 해도 싫증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 다백운루(多白雲樓)가 비록 아름답다고는 하나 이 즐거움과는 **바꿀 수 없다**.

(중략)

또한 구담의 못 봉우리가 비록 기이하기는 하지만 그 변화무상함이 구름의 그것에는 못 미치고, 또 구름의 기이한 변화도 언제나 오래도록 즐길 수 있는 화창한 날만은 못하다. 그리고 마음에 기쁨을 주기는 하나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구름과 산은 매한가지다. 그러니 어찌 종신토록 **외물(外物)**에 얽매어 나의 즐거움을 바꾸겠는가.

아! 삶이 고단하고 집안에 우환이 많아 맑은 날과 좋은 구름을 헛되이 보내던 중 구담 가에 누각을 세워 일 년에 한 번은 다녀올 수 있게 되었다. 그곳에서 구름 같은 못 봉우리를 바라보고, 또 장차 밭 갈고 고기 잡아 끼니를 마련하며, 취를 깨어 옷을 짓고, 유유자적하면서 글을 읽고 이치를 생각한다면 그 즐거움은 바꿀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일없이 홀로 앉았다가 어쩌다 맑은 날을 만나, 때때로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구름을 접하여 그것이 보여 주는 다양한 모습을 보고 천지의 마음을 징험하리니, 그 즐거움은 또한 말 없음에 있을 터이다. 이렇듯 다백운루에는 진실로 즐거워할 만한 것이 많으니, **좋은 구름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님과 구담에 항상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님**에 대해 걱정할 겨를이 있겠는가. 이에 기문(記文)을 짓는다.

— 이인상, 「다백운루기」 —

1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미련을 부각한다.
- ② (가)는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여, (다)는 유사한 구절을 상응시켜 화자의 인식을 부각한다.
- ③ (가)와 (다)는 모두, 계절의 변화를 제시하여 경관의 다양한 변화를 표현한다.
- ④ (나)는 장소의 이동을, (다)는 시간의 흐름을 제시하여 그에 따라 생겨나는 삶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낸다.
- ⑤ (가), (나)는 점층적 표현을, (다)는 연쇄적 표현을 사용하여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낸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가)에서 ‘우환’은 세상 물정에 어두운 것을 뜻하는 한편, 세상과의 불화를 감수하면서 윤리적 가치에 충실하려는 태도를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환’한 인간은 현실과의 괴리에서 오는 안타까움과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 고독감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자신의 삶을 긍정하며 ‘우환’함을 지켜 나가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 ① ‘애친경형과 충군제장을 내 분수 안의 일로만 여겼’다고 한 것에서 윤리적 가치에 충실하고자 했던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군.
- ② ‘어리석고 미친 말이 남의 미움받’았다고 한 것에서 세상과 불화하여 소외당했던 화자의 삶이 나타나군.
- ③ ‘인간 시비 듣도 보도 못’한다고 한 것에서 세상 물정에 어두워 현실과의 괴리를 겪는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나군.
- ④ ‘옛사람 되고 싶’다고 한 것과 ‘만 리에 눈뜨고 태고에 뜻을 두’었다고 한 것에서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군.
- ⑤ ‘우환한 심혼이 그리로 가고 아니’ 온다고 한 것과 ‘인간에 혼자 깨어’ 있다고 한 것에서 자신의 가치관에 충실한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군.

20.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탄식하고 있다.
- ② ㉡: 자신의 처지가 애달픈 이유를 시대를 잘못 타고난 데에서 찾고 있다.
- ③ ㉢: 과거와 비교하여 현재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④ ㉣: 대상의 변화에 주목하여 그 대상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 ⑤ ㉣: 생명을 지닌 존재에 대한 애정에서 생겨난 정서적 반응이다.

21. ㉠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가난을 개의치 않는, ㉡은 화자가 주변의 사물에 친근감을 느끼는 공간이다.
- ② ㉠과 ㉡은 모두, 화자의 비참한 상황을 드러내는 곳이다.
- ③ ㉡은 현실의 공간을, ㉣은 상상의 공간을 나타낸다.
- ④ ㉡은 임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은 삶에 대한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곳이다.
- ⑤ ㉠, ㉡은 긴장감이 고조되는, ㉣은 긴장감이 해소되는 곳이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가)와 (나)는 모두 자연에서 감흥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는데 화자가 인식하는 자연의 의미는 장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 ① (가)의 ‘춘산에 꽃을 보고 돌아올 줄 어이 알며’에서 화자는 자연을 완상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군.
- ② (가)의 ‘동설에 시흥 겨워 추움을 어이 알리’에서 화자는 자연을 추위도 잊게 할 만큼 시를 짓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군.
- ③ (나)의 ‘어즈버 무이구곡이 여기도 그곳인가 하노라’에서 화자는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자연을 무이구곡에 비견될 만큼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군.
- ④ (나)의 ‘이 맛을 인간 세상에 제 뉘라서 알리오’에서 화자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누리지 못하는 자연을 결별해야 할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군.
- ⑤ (나)의 ‘속세를 버린 듯하니 심신도 한적하구나’에서 화자는 자연을 속세로부터 심리적 거리를 둘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군.

23.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담에 항상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좋은 구름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걱정했던 것은 ‘나’의 즐거움이 ‘외물’에 얽매었기 때문이다.
- ② ‘맑은 구름’을 즐거움을 주는 자연물 중에서 선호하는 것은 ‘나’의 즐거움이 ‘말 없음’에 있어서 ‘나’가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는 ‘맑은 구름’에 싫증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 ③ ‘산’보다 ‘구름’에서 ‘나’가 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구름’이 ‘산’보다 변화무상하기 때문이고, ‘구름’과 ‘산’의 속성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름’과 ‘산’이 ‘외물’이기 때문이다.
- ④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즐거움이 ‘공부하는 일’에 있다고 ‘나’가 말한 것은 ‘공부하는 일’에서 얻는 즐거움은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 ⑤ ‘좋은 구름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님과 구담에 항상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님’에 대해 ‘나’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즐거움이 ‘외물’에만 있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태양아

다만 한 번이라도 좋다. 너를 부르기 위하여 나는 ㉠ 두루미의 목통을 비러오마. 나의 마음의 무너진 터를 닦고 나는 그 위에 너를 위한 작은 궁전을 세우련다. 그러면 너는 그 속에 와서 살아라. 나는 너를 나의 어머니 나의 고향 나의 사랑 나의 희망이라고 부르마. 그리고 너의 사나운 풍속을 쫓아서 이 어둠을 깨물어 죽이련다.

태양아

너는 나의 가슴속 작은 우주의 호수와 산과 푸른 잔디밭과 흰 방천에서 불결한 ㉡ 간밤의 서리를 훔아 버려라. 나의 시냇물을 쓰다듬어 주며 나의 바다의 요람을 흔들려 주어라. 너는 나의 병실을 어족(魚族)들의 아침을 데리고 유쾌한 손님처럼 찾아오너라.

태양보다도 이쁘지 못한 시(詩). 태양일 수가 없는 서러운 나의 시를 어두운 병실에 켜놓고 태양아 네가 오기를 나는 이 밤을 새워 가며 기다린다.

— 김기림, 「태양의 풍속」 —

(나)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머뭇있 몇장 더 었어 뒤란으로 간다.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다.

개밥바라기별이

내 눈보다 먼저 땅을 들여다본다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쪽도 볼 수 없다

논둑길 너머 길 끝에는 ㉢ 보리밭이 있고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있다

바람은 자꾸 등 짝을 때리고, 절골의

그림자는 암처럼 깊다. 나는

몇번 머리를 흔들고 산속의 산,

산 위의 산을 본다. 산은 올려다보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저기 저

하늘의 자리는 싱싱하게 푸르다.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친다. 올라가라고

그래야 한다고. 나를 부추기는 솔바람 속에서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 번쩍 제정신이 든다

정신이 들 때마다 우짖는 내 속의 ㉣ 목탁새들

나를 깨운다. 이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 수가 없다. ㉤ 산 옆구리를 끼고

절벽을 오르니, 천불산(千佛山)이

몸속에 들어와 앉는다.

내 맘속 수수밭이 환해진다.

— 천양희, 「마음의 수수밭」 —

2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명령형 종결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가)와 달리 (나)는 시간성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나)와 달리 (가)는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부정적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대상을 부르는 방식을 사용하여 시적 대상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25.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다만 한 번이라도’와 연결하여 ‘태양’을 데려오기 위한 화자의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불결한’과 연결하여 화자의 ‘가슴속’에서 없애고자 하는 부정성을 상징하고 있다.
- ③ ㉢: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과 연결하여 화자가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 ④ ㉣: ‘나를 깨운다’와 연결하여 화자의 내면 의식을 일깨우는 존재를 상징하고 있다.
- ⑤ ㉤: ‘세상에 없는 길’과 연결하여 화자의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가)와 (나)에는 내용 면, 형식 면에서 유사한 특징이 나타난다. 내용 면에서는 고달픈 현실을 새로운 정신으로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드러내거나, 내적 혼란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는 자세를 드러낸다. 한편 형식 면에서는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과정을 대립적 시어를 통해 구현한다.

- ① (가)의 ‘나의 바다의 요람을 흔들’라고 한 것은 화자의 내적 혼란이, (나)의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고 한 것은 현실의 고달픔이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② (가)의 ‘아침’과 ‘밤’, (나)의 ‘하늘’과 ‘땅’은 대립적 시어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한 것이겠군.
- ③ (가)의 ‘서러운 나의 시’는 자신의 시가 새로운 정신을 갖추지 못했음을, (나)의 ‘수수밭이 환해진다’는 화자가 내적 혼란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④ (가)의 ‘어두운 병실’, (나)의 ‘저녁만큼 저문 것’은 화자가 처해 있는 부정적인 상황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⑤ (가)의 ‘네가 오기를’ ‘기다’리는 행위는 새로운 정신을 지향하는 화자의 소망을, (나)의 ‘절벽을 오르’는 행위는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한 화자의 노력을 드러낸 것이겠군.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는 돌아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녀석에게는 학위를 가져오지 못한 한국적인 약점을 보충해 줄 지면\*도 없었고, 지면을 만들 만한 주변머리도 없었다. 유학 지망생 몇 명을 모아다가 회화를 가르치는 것으로 하숙비를 충당해 갔다. 녀석이 밤으로 그 노릇을 한다는 것도 훨씬 뒤에야 알려진 일이었다. 시골에는 처음부터 내려가 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사이 ‘외롭다’는 말의 치사한 뉘앙스를 잊어버린 듯 주머니에 손을 구겨 넣고, 걸핏하면 외로운데 외로운데 소리를 함부로 내뿜으며 거리를 지쳐 쏘다니기도 한댔다.

그런 생활이 반년쯤 지나자 그에게는 두 가지 망측한 습벽이 붙어 있었다. 그 한 가지가 앞서 말한 ㉠ 도벽이었다. 주위에 그의 도벽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드물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맞대 놓고 말할 처지는 못 되었다. 녀석에게 도벽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나서기란 그를 위해서보다 자신이 두려워지는 일이었다.

——스스로 말해 올 때가 있겠지.

그러나 녀석의 태도는 시종 나 몰라라였다. 한 번도 자기 행투에 대해 변명 같은 것을 말한 적이 없었다.

녀석의 또 한 가지 나쁜 버릇은 다름 아닌 거짓말이었다. 그는 아무렇게나 거짓말을 했다. 언젠가는 친구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고 급한 전화를 두루 걸어 준 일이 있었다. 우리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거짓말이었다. 녀석은 물론 근방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까지도 전혀 미안한 얼굴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은 여러 번 있었다. 무슨 목적 같은 것을 가지고 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녀석은 아무렇게나 거짓말을 했다. 문제는 녀석이 그렇게 되는대로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의식을 갖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거짓이 스스로 거짓임을 망각해 버릴 때, 그것은 이미 그의 내부 질서뿐 아니라 외부에 대해서도 무서운 파괴력을 지니게 될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가 웬 ㉡ 거인의 그림자처럼 커다랗게 우리에게로 다가들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는 ‘거짓말’이라는 어휘도, 그 어의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았다. 거품이 개울을 흘러내리듯 아무렇게나 생활을 흘러내려 가고 있었다.

그러던 녀석이 언제부턴가는 다시 진이를 향해 서서히 눈을 열기 시작함으로써 나를 더욱 당황스럽게 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결국 그런 진이와의 일을 모른 체해 두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진이가 나타난 뒤로 우리는 막연하나마 녀석에게 한 가닥 희망을 가져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일에서나마 녀석의 생활에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였다. 언젠가는 그가 진심으로 진이를 사랑한다 말하게 될 때가 올지도 모른다고. 물론 그때는 진이가 또 그로부터 떠나가고 말 것이지만, 그가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그의 의식은 그 지향 없는 흐름을 정지할 것이고, 그는 ‘거짓말’이라는 어휘를 기억해 낼 수도 있으리라는 희망이었다. 녀석과 진이의 일을 모른 채 곁에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러나 그는 기대와는 상관없이 언제까지나 흐르는 ㉢ 거품일 뿐이었다. 하여 우리는 그럴 리가 없으리라는 애초의 확신(그것을 확신이라고 말한 것은, 만약 그것이 없었더라면 그쯤 된 녀석을 우리는 벌써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었노라는 잔인스런 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대체 어떻게 여겨야 할

지 모르고 있던 참이었다. 녀석에게는 우리의 희망이나 추측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또 이상한 일이 생겼다. 진이로서는 그 역시 녀석이 아직 흐르는 거품이라는 훌륭한 증거로 이해되었겠지만, 내게는 이상하게 더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것이 바로 ㉣ 망원경 사건이었다.

[중략 부분 줄거리] 그는 돈을 받고 별을 보여 주는 청년에게서 빼앗듯이 망원경을 산 뒤, 혼자만 별을 보다가 어느 날 망원경의 장례식을 치르기로 한다.

그는 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별들이 노에 차여 비명을 지르며 흩어져 나갔다.

“영국 간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는 계속 물을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나는 문득 팔에서 힘을 빼고 노를 멈추어 버렸다. ㉤ 신기한 일이었다. 녀석의 영국행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녀석의 입에서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소리로 되어 나오는 것을 처음으로 똑똑히 들은 것이었다. 더욱이 녀석의 목소리는 그 말에 대해 무척이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듯 낮고 조심스러웠다.

그렇다면 그의 내부에선 아직도 거짓말이라는 말의 어의가 부서져 허물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더라 말인가. 그는 그런 나의 생각이 당연하다는 듯 말을 이었다.

“생각을 해 본 일은 있지만…… 두 번씩이나 쫓겨 가기는 싫었어. 거짓말을 한 것은 그런 식으로 나 자신의 배반을 맞보지 않고는 견뎌 배길 수가 없었던 때문이었지.”

그러고는 이제 물결이 가라앉은 강심을 더욱 깊이 내려다보았다. 내가 다시 노를 움직이자 그는 팔을 들어 나를 제지했다.

“가만있어. 여기가 좋겠어.”

그는 어둠 속에서 나를 한번 건너다보고는, 그 눈길을 하늘로 큰 호를 그린 다음 다시 강물로 내려뜨렸다.

“이런 물건을 그 녀석들에게 다시 팔 수는 없었지. 어젯밤 무척 많이 생각했어. 하지만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난 어느 때고 이놈을 팔게 되고 말 것 같았어. 멋있는 장례식을 생각했지. 아까 오후에 여기가 생각났어. 이렇게 잔잔히 별 그림자가 무너진 강을 덮고 잠이 들면 이놈은 별의 꿈을 꾸겠지.”

그는 기다란 것을 마치 어린애를 안듯 깊이 가슴에 품었다가 몸을 구부려 가만히 강물 아래로 밀어 넣었다. 그러고는 한 동안 그 물 밑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 이청준, 「별을 보여 드립니다」 —

\* 지면: 만나서 알 만한 얼굴. 또는 그렇게 얼굴이 익은 사이.

27. 밑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는 유학 경력으로 인간관계를 만들려 하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노력한다.
- ② ‘나’는 ‘그’가 외롭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거리를 홀로 쏘다니는 것을 목격하고 안타까움을 느낀다.
- ③ ‘나’는 ‘진이’를 향한 ‘그’의 관심에 희망을 갖지만 그들의 만남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 ④ ‘나’는 ‘그’가 ‘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게 될 때 ‘진이’가 그 마음을 받아 주리라 예상한다.
- ⑤ ‘그’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진이’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는다.

28. [A]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인물의 행적을 요약하여 인물의 태도를 분석한다.
- ② 동시적 사건을 병치하여 사건에 대한 상이한 관점을 드러낸다.
- ③ 공간의 변화를 제시하여 한 인물의 두 행위가 대립되는 원인을 밝힌다.
- ④ 서술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하여 사건의 의미를 해석한다.
- ⑤ 서술자가 관찰한 인물의 내적 독백을 제시하면서 그 인물의 내면 의식을 드러낸다.

2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그’가 유학에서 돌아온 후 생겨난 버릇으로 주위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외면하는 대상이다.
- ② ㉡은 거짓임을 망각한 채 거짓말을 하는 ‘그’에 대한 ‘나’의 인식이다.
- ③ ㉢은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서 벗어나 있는 ‘그’의 생활을 ‘나’가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 ④ ㉣은 ‘나’에게 가슴 아픈 일로 받아들여지는 사건이다.
- ⑤ ㉤은 ‘그’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나’의 정서적 반응을 표현한 말이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별을 보여 드립니다」에서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벗어나 있던 ‘그’는 사회적 관습으로의 회귀를 선택하지만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는 않는다. ‘그’는 사회적 관습과 개인의 가치관 사이에서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관습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깊이 고민한다. 그리하여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아 나간다.

- ① ‘그’가 ‘아무렇게나 거짓말을 했다’고 ‘나’가 생각한 것에서 ‘그’가 ‘나’에게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으로 인식되었음을 엿볼 수 있겠군.
- ② ‘그’가 ‘영국 간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말한 후 ‘이놈을 팔게’ 될 것 같다며 ‘강물 아래로 밀어 넣’은 것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려는 그의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 ③ ‘너석의 입에서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소리로 되어 나’온 것에서 ‘그’가 사회적 관습으로의 회귀를 선택했음을 알 수 있겠군.
- ④ ‘너석의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던 것에서 ‘그’가 새로운 삶의 방향에 대한 고민 끝에 ‘나’에게 말했음을 알 수 있겠군.
- ⑤ ‘나’가 ‘그의 내부’에 ‘거짓말이라는 말의 어의가’ ‘남아 있었 더란 말인가’라고 한 것에서 ‘그’가 사회적 관습을 수용하지 않을 사람으로 ‘나’에게 인식될 것임을 알 수 있겠군.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든 신하가 화신의 뜻을 짐작하고 안대후를 추천하거늘 임금 왈,  
“안대후는 짐의 수족이니 멀리 보내고자 아니 하노라.”  
화신이 나아가 왈,  
“신이 비록 지인지감 없사오나 안경은 이름난 선비라, 그런 그가 일찍이 아들들을 벼슬에 추천한 바 있으니, 자식을 아는 데 그 아버지만 한 사람이 없다 하였으니, 어찌 잘못 천거하였겠습니까? 이극은 흉악한 도적이라, 위세와 명망 없는 사람을 보내지 못하리니 안대후 외에 적당한 자 없사옵니다.”  
임금이 마지못해 명을 내리시니 안대후 명을 받들고, 아우 안대순과 함께 가기를 청하니 임금이 놀라,  
“형제가 어찌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리오?”  
“신의 형제 성은을 입었사옵에 한번 나라를 위하여 죽고자 하옵나니 어찌 위험한 지역을 사양하오며, 또한 안대순 아니면 이 일을 감당치 못할까 하여 사사로운 정을 버리고 아우를 데려가려 하나이다.”  
임금이 칭찬 왈,  
“진실로 충신이로다.”  
하시고 황금 삼천 냥을 사급하사 즉일 발행하라 하시니, 한림 형제 인하여 하직한 후 집에 돌아와 부친께 편지를 올리고 행장을 차렸다.

[중략 부분 줄거리] 안대후 형제는 변방 오랑캐를 물리친다. 형제가 명망을 얻자 화신은 이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이로 인해 안대순은 죽고 안대후는 귀양을 가게 된다.

이때 애주 태수 만청길은 화신과 한패라. 화신의 부탁을 들어 안 사랑을 박대함이 심하더니 안 사랑이 여화와 혼인했음을 듣고 화신에게 이를 전하니 화신이 회답하되,  
“여화를 가두어 둘을 떨어뜨려라.”  
하였거늘, 만청길이 즉시 여화를 잡아들여 왈,  
“안대후는 귀양 온 죄인이라. 어찌 첩을 두고 편히 지내리오? 너는 빨리 다른 지아비를 섬기고 안대후를 거절하라.”  
여화 왈,  
“첩은 안대후 죄상은 모르거니와, 한때만 몸을 허락하고 이제 안대후를 거절하라 하심을 봉승치 못하리로소이다.”  
만청길 대로하여 형틀에 묶고 때리나, 여화 안색 불변 왈,  
“계집이 지아비 섬기는 것은 신하가 임금 섬김과 한가지이거늘, 백성이 지아비를 두 명 섬기지 않는다 하여 이같이 형벌하시니 이웃 나라에 들릴까 두렵습니다. 첩은 금수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아니하나이다.”  
태수 대답할 말이 없음에 목에 칼을 썬 옥에 가두는지라.  
한편 안 사랑 풍토의 병이 든 지 이미 반년이라. 여화 극진히 구호하다가 옥중에 갇힌 후로 안 사랑 병세 날로 심하여 다만 죽기를 기다리더라. 일일은 잠깐 조는데 창안학발의 한 노인이 과란 주머니를 들고 들어와 안 사랑더러 왈,  
“일시 액화는 사람의 상사거늘 어찌 심려하여 병이 났는가? 나는 한나라 의원 화타러니, 저세상에서 그대 부친과 친한지라. 부친이 그대 병을 고쳐 달라고 하기에 왔노라.”  
하고 과란 주머니에서 환약 다섯 개를 내어 주며 왈,  
“이 약을 먹으면 병이 쾌차하리라.”  
하거늘 안 사랑이 일어나 절하고 약을 받아먹은 후 다시 일어

나 말을 묻고자 할 즈음에 문득 깨달으니 ㉠ 남가일몽이라. 심히 의괴하나 입에 오히려 약내 나며 정신이 상쾌하여 그날부터 몸이 가벼워 쾌차하니라. 차시 만청길이 과면되어 잡혀가고, 왕정운이 대신 도입한 후 안대후에게 고향 소식을 전하고 여화를 풀어 주니라.  
차설. 정몽렬이 화신의 심복으로 벼슬이 이부 상서에 이르렀나니 일일은 화신더러 왈,  
“제가 태자의 기색을 본즉 상공을 부족하게 여기고 안대후 등을 그리워하시니 만일 안대후 돌아오면 상공과 우리 무리 죽을 곳을 모를지라. 먼저 안대후 가족을 다 죽이고 왕정운에게 서울의 벼슬을 주어 불러올린 후 여통민으로 애주 태수를 시켜 안대후를 죽이면 후환을 가히 면하리라.”  
한데, 화신이 깨달아 계략을 행코자 하더니 그의 딸 화 소저가 흥계를 듣고 급히 경몽필에게 밀통하니, 몽필은 화신 몰래 화 소저와 사랑하는 사이라, 몽필이 화 소저의 서간을 보고 누이 동생인 부인 경 씨를 만나 화신의 행위를 일러 주며 왈,  
“내 한 계교 있으니 여차여차하면 시택의 화를 면하리라.”  
하고 돌아가니라.  
부인 경 씨는 안대순의 아내라, 이 계획을 시어머니에게 전한 후 각각 분산할새, 부인 경 씨는 안대후의 부인 엄 씨와 이날 삼경에 길을 떠나 안대후가 귀양 가 있는 애주로 향하는지라. 수삭 만에 한 곳에 다다르니 이곳은 소상 강변이라. 두 부인과 시비가 길가에 앉아 쉬더니 문득 수풀 속에서 오륙 인이 내달아 시비를 결박하고 두 부인을 죽이려 하였다. 이때 소박한 옷차림의 한 노인이 나아와 문 왈,  
“두 부인이 애주로 가심을 알거니와 저놈들은 화신 등이 보낸 강도라. 내 사명산에 있더니 운수 선생이 나더러 이 사연을 이르며 가 구하라 하기로 왔노라.”  
하고, 강도 등을 꾸짖으니 강도 등이 욕을 하며 달려들거늘 노인이 막대로 한 번 치더니 문득 청천백일에 뇌정벽력이 진동하며 한 소년이 구름 속에서 내려와 강도 등을 결박하여 언덕 아래 큰 나무에 매고 간 데 없는지라. 그제야 노인이 시비 등을 풀어 주고 문득 간 데 없더라. 두 부인이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사례하고 길을 행하여 수삭 만에 애주에 이르니 안 사랑이 대경 대회하여 나와 맞이하는지라.  
- 작자 미상, 「정세비태록」 -

31.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하들은 화신의 의도를 파악하고 임금의 의중과 다른 입장을 내놓음으로써 임금을 곤란하게 한다.
- ② 임금은 안대후가 심복이라는 이유를 들어 신하들의 입장을 반대하지만 결국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 ③ 안경이 안대후를 인재로 추천했던 것을 근거로 삼아 화신은 안대후가 도적을 물리쳐야 함을 주장한다.
- ④ 안대후는 위험한 지역에 혼자 가려고 하는 자신을 걱정하는 임금을 안심시키기 위해 안대순과 함께 갈 것을 청한다.
- ⑤ 임금이 안대후에게 황금을 내려 주며 즉일 출발할 것을 명령하자 형제는 집으로 가 행장을 차린다.

3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혈육과 만나고 싶은 욕망이 ㉠에서 실현된다.
- ② ㉠의 이후에도 ㉠에서 만난 인물과의 인연을 이어 간다.
- ③ ㉠의 이전에 발생한 인물 간 갈등이 ㉠을 통해 해소된다.
- ④ ㉠에서의 발화는 ㉠의 이후 인물이 가야 할 목적지를 제시해 준다.
- ⑤ ㉠과 현실 간의 경계가 불분명함이 ㉠에서 얻은 물건의 효력으로 나타난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의 인물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고전 소설에서 ‘조력자’는 출신 가문, 능력의 특성, 행위의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 ① 애주의 태수인 ‘왕정윤’은 관리의 권한을 이용해 만청길을 파면하고 여화를 풀어 주었다.
- ② ‘운수 선생’은 위험을 예견하고 소상 강변으로 가서 부인 경씨를 위기에서 구해 주었다.
- ③ ‘화 소저’는 다른 가문의 인물이 꾸민 계락을 자기 가문의 인물에게 알려 줌으로써 안대후를 도왔다.
- ④ ‘경몽필’은 자기 가문의 인물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부인 엄 씨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했다.
- ⑤ 사명산에서 온 ‘노인’은 신이한 능력을 발휘해 ‘두 부인’이 강도에게서 벗어나 애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정세비태록」에서는 악인이 대리자를 통해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선인의 가족을 해코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선인을 곤경에 빠뜨림은 물론 궁극적으로 선인 가문의 몰락을 주도한다. 대리자와 가족을 정치적 대립 구도에 포함하여 갈등 상황을 입체화하는 것이다.

- ① 만청길은 귀양지에 있는 선인의 가족을, 정몽렬은 고향에 있는 선인의 가족을 해코지하려는 것에서, 악인의 대리자를 각각에 등장시키는 방식으로 갈등 상황을 입체화하였군.
- ② 만청길이 ‘화신과 한패’로 서술되고, 정몽렬이 화신을 ‘우리 무리’와 함께 언급하는 것에서, 대리자가 악인과 정치적 이해를 같이하는 방식으로 갈등 상황을 입체화하였군.
- ③ 화신이 만청길에게 계락을 전달하고 정몽렬이 화신에게 계락을 제안하는 것에서, 악인이 대리자와 공모하는 방식으로 갈등 상황을 입체화하였군.
- ④ 만청길이 선인을 가족에게서 분리하고 정몽렬이 선인을 가족과 재회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에서, 가족을 해코지하여 선인을 곤경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갈등 상황을 입체화하였군.
- ⑤ 만청길이 가족을 잡아들이고 정몽렬이 가족의 급습을 도모하는 것에서, 악인의 대리자가 선인 가문의 몰락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갈등 상황을 입체화하였군.